현대소설연구(제96호)
The Journal of Korean Fiction Research
http://doi.org/10.20483/JKFR.2024.12.96.371

‘노동자의 몸’에 대해 쓰기

–송영과 이북명 소설의 직공 재현과 신체성*

최 은 혜**

요약

이 논문은 공장에서의 노동 경험을 소설 창작의 근간으로 삼았던 송영과 이북명의 소설을 중심으로, 노동자의 몸이 어떻게 재현되고 의미화되는지를 살핀다. 송영의 소설에서는 ‘본능에 반응하는 몸’이, 이북명의 소설에서는 ‘감각하고 통각하는 몸’이 노동자 주체-되기의 중요한 매개로 작동한다. 송영은 노동자의 몸에 각인된 식욕, 성욕, 수면욕 등의 본능에 주목하는가 하면, 이념적 사랑을 포함하는 몸적 사랑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또한 이북명은 고통에 반응하는 몸의 감각들을 면밀하게 등장시키면서, 이것이 몸적 존재로서 노동자들의 연대 기반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들의 소설에서 형상화된 노동자의 몸, 특히 그 본능과 감각은 그것이 개별적이면서도 사회적이라는 점을 드러낸다. 이들은 몸을 사회화함으로써 몸이 개인을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저항과 연대의 물질적 토대일 수 있음을 전달한다. 이렇듯 송영과 이북명 소설의 리얼리티는 실제 몸을 통과한 이념을 통해 주조되는데, 이를 일종의 ‘몸-리얼리티’라고 칭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리얼리티에는 핍진성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을 넘어선 주체화의 가능성에 대한 작가적 인식이 포함된다.

주제어: 노동자의 몸, 본능, 감각, 통각, 이북명, 송영, 프롤레타리아 소설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C2A02091388)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연구교수

목차

1. 노동자 출신 작가의 노동 재현이라는 문제
2. 송영의 경우, 본능에 반응하는 몸과의 만남
3. 이북명의 경우, 사건으로서의 통각하는 몸
4. 결론: ‘몸-리얼리티’와 주체 형성의 가능성

인간 특유의 이성은
살의 필요와 제약에 반응하는 이성이다.
-테리 이글턴『유물론』중

1. 노동자 출신 작가의 노동 재현이라는 문제

1924년 최서해의 등장이 조선의 문단에 놀라움을 안겼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빈민 출신 작가가[1] 바라보는 사회는 다른 인텔리 작가들의 소설 속 사회와 판이했다. 김동인은 최서해의 소설에 “굶주림과 병과 아픔과 죄악과 잔혹함과 공포가 막 섞인 사회”가 형상화됨으로써, “아직껏 온전히 유산층의 생활만 소설에서 보던 조선 독서계”가 “서해에게 경이의 눈을” 던지게 됐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럴 수 있던 주요 원인이 빈민으로서 최서해가 거쳐왔던 “별별 경력”에 있다고 덧붙인다. “빈곤한 환경 아래서 어려서부터 무수한 고생과 쓰라림을” 겪으면서 “중으로, 방랑객으로, 아편쟁이로, 인부로, 기아 때문에 죽음에 직면한 가련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경험적 기반이 최서해로 하여금 오히려 새로운 소설 세계를 열어젖히게 하는 힘이 됐다는 것이다.[2] 최서해 자신도 말한바

1) 유승환은 1923년 회령에서 최서해가 걸었던 행적을 추적함으로써 ‘빈민 작가’가 탄생하는 과정을 조선의 문화사적 맥락에서 살핀 바 있다. 유승환,「1923년의 최서해」,『한국현대문학연구』52, 한국현대문학회, 2017 참고.

2) 김동인,「소설가로서의 서해」,『동광』4(8), 1932.8, 97-98면.

그에게는 "심각하고 실제화하지 못하고 공언공상(公言空想)으로 화(化)하여 그만 실패가" 되지 않는 소설을 쓰는 것이 중요했으며[3] 그 창작의 과정에는 그의 노동 경험이 놓여 있었다. 이에 따라 "카프류 리얼리즘의 지식인 중심성"을 띤 소설들이 이념성을 짙게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르게, 그의 소설에서는 "체험의 핍진성"이 전면화된다.[4] 최서해의 등장이 문학사적으로 의미 있는 이유는, 허구성을 대전제로 하는 근대소설의 장(場)에서 "비허구적 경험 기록에 의한 새로운 리얼리티"를 창출했다는 데 있다.[5]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가능할 것이다. 최서해의 등장은 단발적인 사건일 뿐인가. 그렇지 않다면, 최서해 이후 조선의 프롤레타리아 문단에서 '새로운 리얼리티'는 어떻게 계보화될 수 있는가. 이와 관련해 실제로 자신의 노동 경험을 소설 창작의 근간으로 삼은 작가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주목을 요한다. 송영과 이북명이 대표적이다. 1922년 송영은 일하던 우편국에서 우편국장을 잉크병으로 때려 쫓겨난 뒤 도쿄로 건너가 유리공장의 직공으로 일했고,[6] 1927년 함흥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이북명은 상급

3) 최학송, 「나의 소설 보기 어렵다고」, 『별건곤』 18, 1929.1, 118면.

4) 고인환과 장성규는 체험에 기반한 최서해의 소설을 "비주류적인 내러티브의 발현 형식"이라고 보면서, 지식인 중심의 주류적 내러티브와의 차이를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자신의 체험을 특정한 역사철학적 인식론에 비추어 객관화시키는 것은 상당한 수준의 문화자본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이 점에 카프류 리얼리즘의 지식인 중심성의 한계가 노정되어 있다. 반면 최서해의 경우 자신의 체험을 내러티브화하는 과정에서 이를 특정한 대문자 서사에 결합시키는 문화자본을 지니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가 선택한 전략이 체험의 핍진성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고인환 · 장성규, 「식민지 시대 재만 조선인 디아스포라의 발화 전략」, 『한민족문화연구』 46, 한민족문화학회, 2014, 291-293면.

5) 이경돈, 「최서해와 기록의 소설화」, 『반교어문연구』 15, 반교어문학회, 2003, 139면.

6) "1922년 여름 나는 왜놈 우편국장을 잉크병으로 때리고 즉석에서 쫓겨나서 밥벌이도 할 겸, 고학도 할 겸 해서 일본 동경으로 건너가 어떤 공장의 견습 직공살이를 하였다. 그때는 일본의 노동 계급의 혁명적 세력이 고도로 앙양되었던 때다. 내가 있던 공장에도 일본인 공산주의자 지도 밑에 노동 조합이 결성되고 합법적인 파업 투쟁, 보선 투쟁(보통선거를 위한 투쟁)이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었다." 송영, 「어두운 밤 폭풍을 뚫고」, 『우리 시대의 작가 수업』, 역락, 2001, 105면. 『우리 시대의 작가 수업』은 북한에서 간행된 『작가수업』(조선작가동맹출판

학교 진학 대신 흥남의 질소비료공장에 취직해 3년간 노동자 생활을 했다.[7] 이들이 직접 겪었던 노동의 경험을 소설 창작의 중요한 자양분으로 삼았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들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 송영이 노동 경험을 통해 획득한 "구체적인 노동 현장의 질감들은 계급의식을 형상화하는 좋은 재료로서 효과적으로 활용"되었으며[8] 이북명이 겪은 "노동자로서의 실제 체험은 공장 내부의 기계 설비는 물론이거니와 공장 내의 노동 환경 및 세부적인 일상까지도 사실적으로" 그려냈다.[9]

이렇게 볼 때 최서해에서 송영과 이북명으로 이어지는 '노동 경험의 소설화' 계보를 그려보는 것이 가능하며, 그 의미의 해명은 문학사에 존재하는 리얼리티의 여러 갈래를 살피는 중요한 작업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소설적 리얼리티의 내용이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작가의 경험을 통과한 소설들이 핍진성을 띤다는 기왕의 설명은 너무도 단순하므로, 그것만으로는 소설적 리얼리티의 내포가 충분히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이다. 소설을 핍진하게 만드는 요인과 매커니즘에 대한 정치한 분석이 요청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공장'에서의 '육체노동'을 경험한 송영과 이북명의 소설 창작이 몸에 각인된 노동의 기억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사, 1959)을 원전으로 하여 남한에서 발간한 것이다.

7) "나는 1927년 봄에 H고보를 졸업하였습니다. 나는 학교 재학 중에 문학연구소조에 참가하여 닥치는 대로 문학작품을 탐독, 나는 난독하는 한편 습작의 붓을 들었는데 주로 시와 소설이었습니다. (중략) 나도 작가가 되리라. 되되 반드시 이런 작품을 쓰는 작가가 되리라……. 이것이 학창 시절의 나의 결의인 동시에 꿈이자 또한 희망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결의와 희망은 전기 계통의 상급 학교에 진학하게 된 나를 끝내 공장의 길로, 다시 말해서 노동 계급 속으로 돌려 세웠던 것입니다. 지금도 나는 과거를 회상할 적마다 그때가 바로 '나'라는 새파란 청춘의 진로를 결정하는 중대한 '모멘트'였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북명, 「공장은 나의 작가 수업의 대학이었다」, 위의 책, 158-159면.

8) 임혁, 「송영 문학에 나타난 '체험'과 현실 인식의 관련 양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54면.

9) 김정남, 「이북명 소설에 나타난 노동 현실 연구: 사회적 상황과 노동 현실의 변화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121, 한국언어문학회, 2022, 143면.

다음의 인용문은 훗날 북한에서 이들이 식민지기의 노동자 시절을 회고한 부분이다. 여기에는 직공으로서 겪는 고된 육체노동에 대한 경험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 작업은 아침 여섯 시에 시작이니까 합숙에서는 네 시에 일어나야 했다. 저녁엔 여섯 시까지인데 일을 다 끝내고도 뒷소제를 하느라면 일곱 시가 넘어서야 합숙에 돌아갔다. 더욱이 그때에는 견습 직공이란 도제(徒弟)제도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스승(기술을 배워 주는 숙련 노동자)의 개인적인 잔심부름까지 해야 했다.
>
> 이러고 일급으로 하루 40전씩이다. 저녁 먹은 뒤에는 일본대학의 야학부 예술과로 공부를 하러 갔다.
>
> 갔다 오면 열두 시나 된다. 그러나 그냥 자지 않고 한 시간 내지 두 시간쯤은 습작을 계속한다. 합숙 조건은 말이 아니었다. 넓은 큰 방에서 수십 명씩 뭉텅이로 새우잠을 자야 했고 더욱이 5촉 전등을 켜 주었기 때문에 원고는커녕 책도 아니 보였다.
>
> 그래서 합숙 감독이 자는 틈을 타서 공장 안 용광로 옆에 가서 붓을 달리었다. 여러 번 들키어서 벌금까지 물었다. 한 번에 10전씩이다.
>
> 이렇게 한 반년 계속하려니까 육체가 말을 듣지 않았다. 코피를 쏟고 얼굴은 창백해졌다.[10]

> 그날부터 나는 난생처음으로 무시무시한 기계 앞에서 노동을 체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로부터 육체적으로 매우 괴로운 나날이 계속된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나는 날마다 열두 시간 이상의 고통스러운 노동을 용솟는 문학에로의 정열로 간단히 감당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중략)
>
> H 질소비료공장의 형편은 내가 이미 소설이나 '팜프레트'에서 읽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비참하였습니다. 하루 12시간 이상의 노동을 강요당하였

10) 송영, 앞의 글, 106면.

> 으며 그 삯전은 겨우 4십 전 내외였습니다. 이것으로는 최저의 생활도 이어 나갈 수 없었습니다. (중략)
>
> 기계에 한쪽 팔을 잘리운 젊은 노동자의 창백한 얼굴! 골수에 사무친 원한을 풀지 못하고 값없이 희생되어 들것에 누워 묘지로 향하던 노동자들의 시체! 이렇다 할 이유도 없이 억울하게 공장을 쫓겨난 노동자들![11]

긴 노동 시간과 열악한 노동 조건을 견디는 것은 그들의 몸이므로, 이러한 서술은 몸의 고통에 대한 기록이기도 하다. "육체가 말을 듣지 않"아 "코피를 쏟고 얼굴은 창백해"지는 것이 송영 자신뿐은 아니다. 이북명은 "기계에 한쪽 팔을 잘리운 젊은 노동자의 창백한 얼굴"과 "값없이 희생되어 들것에 누워 묘지로 향하던 노동자들의 시체"들, 수많은 노동자의 몸을 늘 마주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 설명한다. 몸으로 부조리를 경험하는 노동자들은 노동하는 몸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북명이 다른 노동자의 몸에 대해 말하는 것도 바로 이 연결성 때문이다. 몸이 느끼는 노동의 고통은 개별적인 것임과 동시에 무엇보다 사회적인 것이다.

송영과 이북명은 이렇듯 연결성을 지닌 몸의 경험을 소설 창작으로써 공장 밖을 향해 확장하고자 했다. 송영이 용광로 옆에서 잠을 아끼며 습작하고 이북명이 "용솟는 문학에로의 정열"로 노동을 감당해 나갔던 행위의 의미는, 문학을 통해 고통받는 몸을 사회화했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몸을 사회화하는 소설들은 몸이 개인을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저항과 연대의 물질적 토대일 수 있음을 일깨운다. 송영과 이북명 소설의 리얼리티는 실제 몸을 통과한 이념을 통해 주조되는데, 몸을 통과한 이념과 머리로 학습한 이념은 다르다. 전자에 입각한 노동소설은 이념성을 띠면서도 결코 관념적이지 않다. 프롤레타리아 문학으로서 이들의 소설이 갖는 설득력은 이로부터 연유한다고 할 수 있다.

상술한 문제의식에 착안하여 본고는 송영과 이북명 소설에 나타난 '노

11) 이북명, 앞의 글, 160-162면.

동자의 몸'에 대한 특유한 소설적 형상화 방식을 살피고자 한다. 이는 노동의 경험을 몸으로 통과한 존재가 그려내는 노동자의 몸은 어떠한 형상과 의미를 가지는지,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찾는 작업이기도 하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노동 경험을 서사화한 소설이 가지는 리얼리티와 그 핍진성의 내용을 상세히 구명하는 데 목표를 둔다. 당연하게도 노동자의 몸에 대해 썼을지언정 송영과 이북명의 형상화 방식이 같을 수만은 없었다. 1920년대 중반부터 1930년대 중반까지 쓰인 송영과 이북명의 노동소설들을 대상으로[12] 2장에서는 본능에 반응하는 몸을 재현하는 송영 소설의 장면들과 그 의미를, 3장에서는 감각하고 몸을 강조하는 이북명 소설의 장면들과 그 의미를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송영의 경우, 본능에 반응하는 몸과의 만남

1929년 1월 『조선지광』에 실린 송영의 「우리들의 사랑」은 동경의 솜트는 공장에서 일하던 영노가 옛 연인 용희를 우연히 만나면서 시작된다. 본래 이들은 조선에서 약혼한 관계였으나 영노가 기근에 빠진 조선을 구

12) 천정환은 한국의 노동소설을 "'역사적' 양식"으로 지칭했다. 그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소설은 "1920-1930년대의 식민지 자본주의화, 해방기 노동자계급의 정치행동, 1960-90년대의 산업화·민주화를 맥락으로 삼고 각각 그 시대 '노동'과 노동하는 인간을 표현하고, 사회를 변혁하는 과제에 투여된 글쓰기 양식이다."(천정환, 「세기를 건넌 한국 노동소설: 주체와 노동과정에 대한 서사론」, 『반교어문연구』 46, 반교어문학회, 2017, 130~131면) 본고에서는 '노동소설'을 공장 노동자들의 노동과 투쟁 등에 다루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는 이북명이 '공장문학'이라고 지칭한 것에 가깝다. 이북명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프롤레타리아 문학에 있어서 공장을 취재로 한 문학, 즉 다시 말하면 신흥계급, 노동자층을 대상으로 한 문학이 농민문학보다 못지않게 긴급한 문학 과제의 하나이라는 것은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다. (중략) 공장문학은 그 문학만이 가질 수 있는 성질과 특수조건을 특유(特有)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이미 허여(許與)된 문인들에게만 맡길 문학은 아니다. 생생한 기분으로 직장에서 노동하고 있는 노동자들 중에서 작가가 출현하여야 할 것은 두말할 것도 없는 희망이다." 이북명, 「공장문학과 농민문학」, 『중앙』 4(6), 180~181면.

하기 위해 ××회의 맹원으로 활동하다가 투옥된 사이, 용희가 친척 아저씨의 꾐에 빠져 동경의 공장에 팔려 가면서 헤어지게 된다. 용희가 다른 이와 결혼했다고 오해를 한 영노는 단념 후 노동자가 되기 위해 도일(渡日)하는데, 공장에서 일하던 중 용희와 마주친 것이다. 용희는 친척 아저씨가 들고 도망간 자신의 열 달 치 월급을 비롯해 일본으로 이동할 때 든 차비와 잡비 등 백 원의 빚을 지고 모스린 공장에 묶여 있는 신세다. 이를 알게 된 영노는 용희를 구해내고자 하지만 방법을 마련하지 못해 근심에 빠지고 곧 있을 메이데이 행사 준비도 소홀히 하게 된다. 이때 용희로부터 "저는 돈 백 원에 전당이 잡힌 인조기계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의 자유가 없습니다. (중략) 그러나 우리의 메-데-는 가까워 옵니다. 이곳 우리들의 모스린 여자직공조합에서도 참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나 만나 뵙지요."[13]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받고, 영노는 다시 기운을 차린다. '우리들의 사랑'을 되뇌는 영노의 모습으로부터 이 소설이 '붉은 사랑'의 이념을 담아낸다고 볼 수 있지만,[14]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혁명이란 사랑의 지속이고, 사랑의 지속이란 혁명의 지속"이라는 메시지를 담아낸다고 볼 수도 있다.[15] 여러 송영의 소설에서 '사랑'은 인간적 본성에 가까운 것이며, 혁명으로 나아가는 행동을 추동한다.

한 가지 더 주목을 요하는 대목은 1929년에 쓰인 이 소설이 "이렇게 빛나는 1923년의 오월은 가까워 온다."라는 문장으로 끝난다는 점이다.[16]

13) 송영, 「우리들의 사랑」, 『조선지광』 82, 1929.1, 174면.

14) "소위 '붉은 사랑(Red Love)'이라고 일컬어졌던 남녀 사회주의자들의 이성애 방식"은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조선의 프롤레타리아 문단에서 널리 받아들여졌다. "러시아의 혁명가 콜론타이의 소설 『바실리사 말리기나Vasilisa Malygina』(1923)가 1927년 미국에서 '붉은 사랑(Red Love)'라는 제목으로 영역된 데에서 유래된 이 용어는 식민지 조선에서는 '적연(赤戀)', '붉은 연애'로 불리기도 했다." 노지승, 「'붉은 사랑'이라는 성 각본(Sexual Script)과 여성의 정서적 주권: 여성 사회주의자 작가의 자기 서사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88, 한국현대소설학회, 2022, 150면.

15) 최병구, 「본성, 폭력, 사랑: 정념의 서사로서 프로문학의 조건(들)」, 『동악어문학』 61, 동악어문학회, 2013, 24면.

1925년 7월『개벽』에「늘어가는 무리」로 등단한 이후 1920년대에 창작된 송영의 소설들은 대부분 1920년대 초반 도쿄의 공장을 시공간적 배경으로 삼는다. 1922년 일본에 건너갔다가 1923년 무렵 귀국해 염군사를 조직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때[17] 1920년대 초반은 그가 실제 노동자로 일했던 시기를 지시한다고 볼 수 있다.[18] 실제로 송영은 "선생은 창작하실 때 모델을 쓰십니까"라는 편집부의 질문에 "대개는 모델이" 있었다면서 "맨 처음 쓸 때에는 내 자신을 모델 삼았습니다.(예「용광로」,「선동자」)"라고 답했고,[19] 공장 노동자로 일하던 시기의 생활이 "'카프' 창립 전후에 발표된 단편들인「용광로」,「석탄 속의 부부들」,「우리들의 사랑」 등 여러 작품 속에 반영되었다"고 밝힌다.[20]

그중,『개벽』의 현상공모에서 3등으로 당선된「늘어가는 무리」는 도쿄에 온 지 석 달 가까이 된 승오가 공장에 취직하면서 점차 노동자가 되어가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승오의 '노동자-되기' 서사로 정리될 수 있는 이 소설은, '몸'이 중요한 변화의 장소이자 변화를 이끄는 매개로 작동함을 드러내 보인다. 승오는 먹고 살기 위해 사무원, 점원, 직공견습, 신문배달부 등이 되고자 하나 식민지민이자 외국 사람이라는 이유로 번번이 취업에 실패한다. 이러한 상황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그는 그리 흥분도 하지 않은 채 고소(苦笑)를 지을 뿐이다. 승오의 몸과 차림새는 그가 취업을

16) 송영, 앞의 글, 175면.

17) 앵봉산인,「'신흥예술'이 싹터 나올 때: 그때의 이면사(裏面史)」,『문예창조』1, 1934.6, 69-70면.

18) 그러나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송영은 이전과는 다른 경향의 소설들을 창작한다. "현장에서 발견되는 주체적 노동자의 각성과 투쟁의식은 이 시기에 와서는 주로 지식인의 일상적 삶으로 대체된다. (중략) 송영은 1920년대에는 자신의 노동자 체험을 소설화하거나 완전히 가공적 인물을 내세운 경우가 많았다고 언급하고 있는 반면, 1930년대 들어서면서는 반드시 자신이 아닌 실제의 모델을 보조적 인물에 투사하여 형상화하는 방법을 취했다." 임혁, 앞의 글, 89면.

19) 송영,「설문」,『작품』1, 1939.6, 26면.

20) 송영,「어두운 밤 폭풍을 뚫고」,『우리 시대의 작가 수업』, 106면.

하지 못하는 이유와 관련된다. 다른 노동자들과 다르게 낡고 철에 맞지 않으나마 양복과 구두를 신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손가락이 길고 몸이 약하다는"[21] 이유로 공장에서 줄곧 거절을 당했던 것이다. 이러한 외향 묘사는 그가 육체노동과 어울리지 않는, "정신 노동 흰손 사람의 노동"(75)에나 어울리는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우연히 공장에서 일하는 일가친척을 만나 그의 소개를 통해 직공으로 일할 기회를 얻으러 가는 과정에서도 "첫 나들이 나온 새색시 모양으로 몸을 어떻게 가져야 할는지"(79) 몰라 할 뿐이다. 공장에 취직한 후 배달을 위해 수레를 끌면서는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85) 떨렸고, 일을 마친 후 "승오의 몸은 솜같이 늘어졌다."(87)

> 별안간에 문이 와락 열리며 한 떼의 노동자가 들어온다. 오금까지 올라오는 해어진 양복바지와 입다가 내버린 한텐들을 입고 개개의 머리에는 수건을 동였다. 그중에도 나이 어린 자는 캡을 눌러 썼다. 그리고 또 요사이 갓 들어온 모양인지 시골 농군 복색 한-새까만 조선 바지 동옷-상투 달린 자도 두엇이나 섞이었다.
>
> 키가 크고 작으며 몸집도 크고 작아서 사람마다 다- 다른 용모와 체격을 가지고 있건만 해에 그을려서 까맣게 된 여윈 얼굴에 기아와 절망과 또는 피로한 빛들만은 다 같이 통일되고 있다. 그리고 일제하게 다리의 회목까지-발은 물론-까맣게 흙투성이가 되어 있다.
>
> 그들은 우당퉁당 몰려 들어왔다. 별안간 일본말 조선말(각 지방 사투리) 이야기 욕지거리 퉁거리 쌈짓거리 이런 것들이 와글와글하고 일어났다. 난잡하고 요란한 훤화는 순직한 인간성을 띠고 있다.(80)

승오의 몸 반대편에는 노동자의 몸이 놓여 있다. 숙소에서 노동자들을

21) 송동양, 「늘어가는 무리」, 『개벽』 61, 1925.7, 74면. 이하 이 소설을 분석하는 부분에서 인용이 필요한 경우 괄호 안에 면수를 적어 본문에 표기한다.

처음 만난 승오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 또한 그들의 몸이다. 키도 몸집도 제각각이지만 모두 "까맣게 된 여윈 얼굴에 기아와 절망과 또는 피로한 빛"을 띤 노동자들의 모습은 그들의 고된 노동을 짐작하게 해준다. 그러나 송영은 노동하는 몸을 이처럼 단순하게 처리하지만은 않는다. 노동자들이 등장하자 조용했던 숙소는 이내 시끌벅적해진다. 각종 언어와 온갖 욕이 난무하는 현장이 노동자의 "순직한 인간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표현한 데서 알 수 있듯, 이 소설은 노동자가 가지는 특정한 본성을 전제한다. 그들은 식사 시간이 되자 "누구한테 빼앗길 듯이 애를 써서 들이마시기도 하고 먹고 나서 더 먹고 싶은 생각으로 흘끔흘끔 부엌을 들여다" 본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승오는 그들이 "찰나의 정신에 지배"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배고프다가 음식을 보고 좋아하며 좋아하는 음식을 입에 넣을 때의 쾌한 느낌-가벼운 느낌-을 느끼는 생물 필연의 본능적 환희에 잠겨"(82) 든다는 것이다. 이처럼 노동자의 몸은 강한 동물적 본능이 자리한 공간이기도 하다.

이후 숙소에서 밥을 보내는 장면은 이를 더 극대화해 보여준다.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힘든 노동을 하고 밤을 맞이한 승오는 잠든 노동자들 사이에서 온갖 공상에 사로잡힌다. 그때 누군가가 승오의 몸을 덮쳐온다.

> 조용한 밤, 쓸쓸한 객지의 밤은 그로 하여금 불꽃을 만들게 하였다. 말라비틀어진 승오의 얼굴이나마 그에게 있어서는 분홍 구름이 떠 있는 미인의 얼굴같이 보였다. 그의 길기만 한 손길은 보드런 굴곡미가 있는 손목같이 보였다. 더욱이 뼈다귀에 얽혀진 거센 몸뚱이는 그에게 있어서는 훌륭한 곡선미를 찾을 수가 있었던 것이었다. 그는 이지를 떠난 본능에 지배되고 있다. 본능까지 본능답게 충족히 태우지 못하는 이상한 세상에서 짓밟힌 그는 채우지 못한 그만큼 본능의 충동이 강렬한 것이다.(88-89)

똥이 마렵다며 겁탈의 위기를 모면한 승오는 숙소에서 뛰쳐나와 짐승 같은 노동자들에 대한 격분에 휩싸이고, 문득 흰 손으로 삐라를 뿌리고 팜플렛을 쥐었던 자신의 과거를 떠올린다. 이는 노동자가 되었음에도 정작 노동자들을 관찰자적으로 지켜봐 왔던 승오의 위치성을 보여준다. 새벽이 지나 동이 터오자 울고, 서로를 부르고, 서로의 손목을 잡으며 분주하게 움직이는 노동자들을 보면서 승오는 문득 자신의 그러한 입장이 얼마나 노동자적이지 않은지 깨닫게 된다. 노동 없이 노동운동에 몰두하던 과거의 자신에게는 "머리와 몸뚱이가 따로 독립"(90)해 있었던 것임을 비로소 알게 된 것이다. 이러한 깨달음에 따르면, 정신노동이 지극히 이지(理智)에 한정된 활동인데 반해 육체노동은 몸과 생각이 일원화된 상태를 만들어낸다. 송영은 그렇게 일원화된 상태로부터 "순직한 반역성", 즉 사회 변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친다. 육체노동은 거칠지만, "거친 곳에 참이 흐르고 짐승같은 곳에 인간성이 있다"(91)는 서술을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이 소설은 승오가 "희고 긴 손가락"으로 상징되는 정신적 상태를 벗어나 거친 인간성을 가진 몸적 존재로 거듭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셈이며,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몸이 각종 본능의 형태를 간직한 채로 승오의 변화를 이끄는 몸적 연대의 서사를 구현한다.

이후 소설은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공장 일대에 노동가가 울려 퍼지는 상황을 묘사하며 끝이 난다. "동경 시가를 위협"하는 "연기같이 꿈틀"(91)거리는 것은 곧 노동자의 몸을 지배하는 본능이자 그로부터 생겨나는 변혁적 가능성의 은유로 읽을 수 있다. 송영의 소설에 나타난 노동자의 몸은 다양한 본능이 분출되는 장소다. 그리고 이 본능은 자본주의에 대항할 수 있는 위협적인 힘이자 사회 변화를 이끄는 잠재적 동력으로 그려진다. 다음 인용문은 1926년 6월 『개벽』에 발표된 「용광로」의 초반부에서 주인공 김상덕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동경 오오지마에서의 한 공장에서 일하는 직공 김상덕은 줄곧 침묵으로 일관해 '벙어리'라고 불리는 자이다.

김은 스물 다섯이 갓 된 젊은이다.

'그리고 우리 젊은 사람의 나갈 길은 다만 하나밖에 없다. 그리고 할 일은 다만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일이란 단순하게 통일이 되어서 다만 하나밖에 아니 남은 까닭이다. 하나다. 새벽맞이의 전날 밤 준비인 싸움, 이 싸움 하나뿐인 이 세상에 남아 있는 그 하나다.'

김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밖에 없는 일을 착수한 것이다.

착수하여야겠다는 이론을 가지고 김이 이 일에 착수했다느니보다 흘러가는 물과 같이 그의 환경은 그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경우를 준 것이다. 김은 이론 가진 싸움꾼이 아니다. 역경…… 방랑, 최하층으로 타락, 기갈, 식욕, 여기에서 일어나는 반역적 정열, 이것이 김으로 자연스런 싸움꾼을 만든 것이요 따라서 자연스럽게 싸움꾼이 없어서는 안 될 이러한 큰 공장의 직공 견습으로 된 것이다.[22]

그는 겉으론 침묵을 지키지만 마음에는 어떤 "싸움"을 품고 있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 공장 직공이 되었다. 그런데 '흰손 노동자'였던 승오와 다르게 이 소설의 주인공 김상덕은 "이론 가진 싸움꾼이 아니"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에게는 「늘어가는 무리」의 노동자들이 지니고 있었던 "역경…… 방랑, 최하층으로 타락, 기갈, 식욕, 여기에서 일어나는 반역적 정열"이 존재한다. 이미 노동자적 정체성을 가진 인물을 내세운다는 점에서, 이 소설이 「늘어가는 무리」처럼 노동자-되기 자체를 다루는 대신 노동자의 투쟁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하게 될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말하자면 「용광로」는 실천적 주체-되기의 서사인 것이다.

일과가 끝난 김상덕이 "개개풀린 눈, 느린 걸음, 시원치 못한 호흡"을 하고 목욕탕으로 향하는 장면은 그가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조선인이 일본으로부터 겪는 차별을 노동

22) 송영, 「용광로」, 『개벽』 70, 1926.6, 49-50면. 이하 이 소설을 분석하는 부분에서 인용이 필요한 경우 괄호 안에 면수를 적어 본문에 표기한다.

자 김상덕의 몸을 통해 상기하는 대목이다. “그의 온몸은 가시나무로 찔린 것과 같이 만신창이”가 되어 “긁은 자국에 피, 피딱지 위의 긁은 자국”(50)이 가득하다. 공장이 제공하는 숙박 시설의 위생 조건이 좋지 않아 이에 물린 것이다. 그는 이러한 자신의 몸을 일본인 노동자들에게 보이기 싫어 사람이 없는 새벽 시간에 목욕탕을 찾는데, 이유인즉 “피부병자 같은 자기의 살을” 보고 “요보는 아무렇게 하여도 이가 많아서 더럽다고들 놀리어 대는 소리에 조선 사람 전체를 자기 한 몸 때문에 욕을 먹이는 것 같은 민족적 책임감을 더욱더욱 느낀 까닭이다.”(51) 민족적 차별을 몸과 연결시키는 사유는 다른 장면에서도 나타난다.

> 그 아이들은 조선서 갓 건너온 고소(小僧)이다.
> 건너왔다느니보다 새로 사온 것들이다. (중략)
> “일본에만 가면 공부를 시켜준다. 옷 주고 밥 주고 일 가르치고 공부시켜준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농군을 속여서 나무나 하고 아이 보아주고 하던 어린아이를 데려오는 것이다. (중략)
> 마치 창기 모양으로 여기 올 때까지의 비용은 주인에게 빚을 진 셈이니까 일거일동은 주인이 좌우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인정과 풍속이 다른 이곳에서 평생에 햇빛도 보지를 못하고 어린 몸뚱이를 온통 대자본가의 자본 확충의 노예 노릇을 하는 것이다.
> 그는 이 어린 노예들을 볼 때에는 울었다. 이를 깨물었다. ‘가갸거겨’하고 ‘눈깔사탕’이나 사 먹을 십이삼 세의 유년들을 순전한 기계를-그보다도 상품-만든다는 것은 얼마나 가련한 일이냐?(56)

위 인용문에서 김상덕은 일본의 공장에서 값싼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식민지 조선의 어린 아이를 거짓으로 데려오는 상황에 분노한다. 자본주의와 제국주의가 어떻게 엮일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 이 장면은, 식민지 아이의 “어린 몸뚱이”가 식민 본국의 자본주의 발전을 위해 어떻게

"순전한 기계" 혹은 "상품"이 되는지를 설명한다. 이는 자본주의와 그 발전된 형태인 제국주의가 다양한 감각을 인간성의 본질로 가지는 몸을 어떻게 소외시키는지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다르지 않다. 자본주의가 "인간적 향유를 할 수 있는 감각들, 인간적인 본질적 힘들로서 확증되는 감각들", "오감뿐만 아니라 이른바 정신적 감각들, 실천적 감각들(의지, 사랑 등), 한마디로 말해 인간적 감각"을 빈곤하게 만든다는 것은 이미 마르크스가 말한 바와 같다.[23] 하지만 제국주의적 억압이 겹쳐진 상황에서 식민지인, 더욱이 식민지의 어린 아이에게 그 억압과 착취의 정도는 가장 노골적이고 중층적으로 가중될 수밖에 없으며, 나아가 어린 시절부터 기계로 길들여진 몸은 반역으로 연결될 수 있는 다양한 본능들의 마비를 극단적으로 겪게 될 수밖에 없다.

한편, 「용광로」가 이렇듯 마비된 감각을 되찾을 가능성을 품고 있는 방식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사측에서 노동자에게 불리한 규칙을 제시한 데 대해 노동자들이 일제히 분노하는 가운데, 그간 침묵하던 김상덕은 규칙을 수용하지 말고 저항하자는 말을 내뱉는다. 이에 "김은 상혈이 되었다. 저항 없는 온몸에는 살점마다 각각 뛰었다."(61) 그러나 점차 군중이 불안에 휩싸이고, 김상덕 역시 소요를 잠재우기 위해 투입된 경관에게 "아무렇게나 잡혀 갔다 오리라고 소극적 태도"를 갖게 된다. 그때 자신이 좋아하는 일본인 하녀 기미고와 눈이 마주친다.[24]

기미고는 정신없이 바라본다. 어쩐지 두 눈초리는 샐쭉하여지고 까만

23) 칼 마르크스, 『경제학-철학 수고』, 강유원 옮김, 이론과실천, 2006, 136면.

24) 강문희는 내선결혼/연애와 관련해 이 소설이 "남녀 개인을 둘러싼 민족과 사회적 콘텍스트"를 지우고 있다면서 송영 소설이 지닌 국제주의적 연애의 경향성 설명한다. "김상덕은 노동의 고됨과 부양하기 힘든 가족들의 생각까지 위로하는 기미고의 존재 때문에 기미고와 애정전선을 형성한다." 이는 "단순한 엑조티즘이나 세계주의"를 넘어서는 방식이다. 강문희, 「송영 소설 연구: 식민지 시기 국제주의 연애와 가족 서사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56면.

눈동자에는 물기가 돌았다. 확실히 흥분이 된 모양이다.

김은 경관에게 끌린 대로 용광로 앞으로 갔다.

그와 기미고의 사이는 다섯 칸 통박에 아니 남았다.

우연히 그는 기미고의 두 눈과 마주쳤다.

불길 같은 눈길…… 불길 같은 충돌

그는 별안간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하였다. (중략)

그리하여 그는 꼼짝을 아니 하였다. 산악같이 무거웠다. 경관은 그냥 잡아끈다. 그는 경관이 잡는 대로 뿌리쳤다. 경관의 발길, 손 주먹. 그것은 우박 모양으로 그의 몸을 휩싸버렸다. 그의 모양은 흉넝하게 변하였다. 머리는 쑥대같이 흐트러졌다. 옷은 찢어졌다.(62)

김상덕은 기미고와의 눈맞춤을 통해 다시금 포효한다. “불길 같은 충돌”이 “우박 모양으로 그의 몸을 휩싸”고 경관에게 온몸으로 저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소설은 용광로가 무너지면서 절정에 다다른다. 기미고에게 용광로의 불꽃이 붙자 김상덕은 경관을 뿌리치고 기미고에게 달려가 그를 강하게 껴안는다. “불붙은 옷자락을 손으로 쥐었다. 뜨겁거니 무겁거니 하는 모든 육체의 괴로움은 없었다. 없었다느니보다 몰랐다. 순전히 그는 강렬한 열정에 도취되어 버렸다.”(64) 기미고와의 사랑에 의해 되찾은 ‘열정’이 이후 그를 계속해서 실천적 주체가 될 수 있게끔 하는 동력이 되는 듯한 암시를 남기며 소설은 끝난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의 사랑이 결코 이념적 사랑의 형태만으로 수렴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당시의 ‘붉은 사랑’과 다르다. 송영은 이러한 김상덕의 상태를 “생물 본능의 반항”(63)에 의한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서술한다. 이는 곧 실천이 이론으로써가 아니라 몸으로써, 몸에 새겨지는 본능으로써 추동된다는 메시지를 담아내는 것이다. 요컨대 송영 소설 속 몸의 리얼리티는 핍진한 묘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인물이 실천적 주체로 거듭나는 데 개연성을 부여하는 것에 의해서 지탱된다고 할 수 있다.

3. 이북명의 경우, 사건으로서의 통각하는 몸

이북명의 습작고를 살펴주고 그가 작가가 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한설야는 이북명이라는 노동자 작가의 등장을 "한 경이(驚異)"라고 설명한다.[25] 그에 따르면 이북명의 소설에는 "아직 생활 형태와 의식과의 유물변증적 교호작용에 대한 래디컬한 인식적 시각"이 부재하지만, 또 그만큼 이론에 결박되지 않은 "생생한 프롤레타리아적 현실성"이 존재한다. 기존의 프롤레타리아 문학이 "유치한 자위적인 이론적 개념에 편기(偏寄)하여 프롤레타리아의 승리적, 기록적, 심하면 영웅적 결론으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점에 비할 때, "프롤레타리아의 독특한 호흡"을 담아낸 이북명의 소설은 "여실한 진박력(眞迫力)"이 있다는 것이다.[26] 한설야 역시 이북명의 소설이 그럴 수 있는 이유를 그의 노동 체험에서 찾는다. 그렇다면 '생생한 프롤레타리아적 현실성', '프롤레타리아의 독특한 호흡'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노동을 몸으로 경험한 작가에 의해 창작한 소설에서는 어떻게 실감이 만들어지는가.

1930년대 초중반 이북명 소설의 주요한 특징은[27] 바로 감각적 묘사에

25) "생산현장의 생생한 인간이 어지러운 초고 중에서도 약여(躍如)히 나의 머리를 찔렀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계급이 우리들에게 부과한 과제의 일 단면이 방불(彷佛)히 약동하고 있음을 나는 느끼었다." 한설야, 「작가가 본 작가(6) 이북명군을 논함: 그 외 작품에 대하여(1)」, 『조선일보』, 1933.6.22, 3면.

26) 한설야, 「작가가 본 작가(7) 이북명군을 논함: 그 외 작품에 대하여(2)」, 『조선일보』, 1933.6.23, 3면.

27) '흥남'이라는 공간에 집중해 이북명의 소설을 분석하는 작업을 이어온 차승기는 "「질소비료공장」을 발표한 1932년부터 3~4년 동안 발표한 소설은 거의 모두 저 공장=요새 안팎의 조선인들의 삶을 다루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차승기, 「공장=요새, 또는 생산과 죽음의 원천: 흥남과 이북명」, 『한국문학연구』 49,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5, 338면) 이때 "공장=요새"란 "자연과 인간, 식민지와 식민본국, 노동과 자본이 대결하는 식민주의의 최전선으로서의 흥남의 공장"을 일컫는다.(같은 글, 325면) 이북명은 이 시기 소설들에서 대부분 공장 내의 노동자들의 노동 현장과 그 부조리성에 주목하다가, 1935년을 지나면서는 노동자를 다루더라도 '생활'에 밀착된 문제들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고 흥남의 공장을 벗어난 빈민이나 지식인의 삶

서 찾을 수 있다. 특히 그의 소설에서 '공장'이라는 공간은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전달된다.[28] "빨갛게 단 '리베트'를 힘차게 두드리는 소리, '파이프'를 쾅쾅 집어던지는 소리, 치기영 치기영 하는 목도소리, 몇 톤씩 되는 기계를 운반하는 영치기 소리, 감독의 쏘아버리는 소리, 욕하는 소리, 노랫소리"[29] "파이프를 두드리는 소리, 목도질하는 소리, 도루코 소리, 유산 가마에서 장작이 튀는 소리, 초석(硝石)을 쏟아 내리는 소리, 분쇄기에서 초석을 깨는 소리"[30] 등이 구체적으로 서술됨으로써 공장의 현장감이 전해지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공장의 냄새 또한 후각적 이미지로서 중요하게 묘사된다. "녹냄새로 콧구멍이 째어지는 듯하고 강기침이 갓 컹컹 쏟아"진다거나[31] "유산계(硫酸係)에서 태우는 유화 철광(硫化, 鐵鑛)의 독한 냄새가 해풍에 불리어서 창호와 명숙의 콧구멍과 눈을" 쑤신다는[32] 등의 묘사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즉, 이북명 소설 속 공장은 "귀와 코와 눈과 목을 강하게 자극하는 감각적 고통을 떠올릴 때에만 하나의 장소로 성립"된다.[33]

> 포화기 안에서 암모니아와 유산(硫酸)이 디끓는 소리…… 이런 소리를 전 육신이 아프게 감수(感受)하는 그들은 무엇을 생각할 여유도 없이 얼빠진 사람처럼 허둥지둥 기계의 신그럼을 하는 것이다. 세차게 돌아가는

을 그리기도 한다.

28) 이북명 소설에서 소리가 활용되는 방식을 논한 연구로는 배상미의 다음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그는 소설에서 묘사되는 이러한 소리들이 "공장의 현장성과 노동자들을 압도하는 기계의 거대함과 강력한 힘을 효과적으로 재현해낸다"고 지적한다. 배상미, 「억압의 소리와 희망의 소리 사이: 이북명 소설에 나타난 기계와 인간의 관계」, 『현대소설연구』 80, 한국현대소설학회, 2020, 243면.

29) 이북명, 「암모니아 탱크」, 『비판』 2(8), 1932.9, 115면.

30) 이북명, 「기초공사장」, 『신계단』 1(2), 1932.11, 111면.

31) 이북명, 「암모니아 탱크」, 앞의 책, 116면.

32) 이북명, 「인테리」, 『비판』 2(11), 148면.

33) 차승기, 「자본, 기술, 생명: 흥남-미나마타(水俣) 또는 기업도시의 해방 전후」, 『사이間SAI』 14,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13, 429면.

> 기계 곁에서 기름을 주고 기압계(氣壓計)를 보고 '벨브'를 조절하는 그들은 '로보트'와 같았다.
>
> 기름이 타는 냄새, 쇠가 썩는 냄새, 암모니아의 악취, 유산의 악취…… 이런 냄새가 한 군데 엉키어서 일종 독특한 독취를 직장 안에 발산하고 있다. 직공들은 그 냄새를 피하기 위하여 가제로 마스크를 만들어서 건다. 그러나 그런 것은 냄새 앞에서는 아무 소용도 되지 않는다.
>
> 고막을 깨뜨리는 소음을 육신에 감수하며 악취를 호흡하며 강한 전광을 안구에 받으면서 일하는 그들은 한 시간을 하루같이 길게 생각한다. 하품이 입을 다물 새 없이 터져나오고 온 육신이 소음같이 피곤하여져서 그들은 도무지 맥을 차리지 못하였다.[34]

중요한 것은 '노동자의 몸'으로부터 비롯되는 이러한 감각들이 노동 현장에서 느껴지는 고통과 연결된다는 점이다. 날선 감각들은 노동하는 몸이 처해 있는 열악한 조건을 누구보다 잘 감지해내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위 인용문의 서술은 이북명의 많은 소설 속에서 유사하게 등장하는 부분인바, 노동자들은 "이런 소리를 전 육신이 아프게 감수(感受)"하면서 마치 기계나 로봇처럼 노동하고 "냄새를 피하기 위하여" 무명천으로 입을 가려보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다. 게다가 밤새 이루어지는 노동으로 인해 "하품이 입을 다물 새 없이 터져 나오고" "도무지 맥을 차리지" 못한다. 이는 고도의 산업적 실험이 이루어졌던 흥남이라는 공업도시의 성격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황산, 유안, 암모니아 등 공장 내부의 생산 과정에서 파생되는 유독성 물질들은 노동자들의 신체를 파괴했고, 가공되고 버려지는, 연소되고 배출되는, '쓰레기'가 된 자연은 흥남 일대에 원인불명의 질병이 창궐하게" 했다.[35]

더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의 통각하는 몸이 서사 내에서 일종의 '사건'

34) 이북명, 「오전 3시」, 『조선문단』 23, 1935.6, 41면.
35) 차승기, 「공장=요새, 또는 생산과 죽음의 원천: 흥남과 이북명」, 앞의 책, 333면.

으로 존재하고 노동자들은 이를 통과함으로써 '주체'가 된다는 점이다. 이때의 사건과 주체는 알랭 바디우 철학의 핵심 개념을 경유한 용어이다. 바디우에 따르면 사건은 "상황의 법칙성에서 벗어나 있다. 사건은 상황의 언어로 명명될 수 없는 공백의 분출이기 때문에, 상황을 파괴할 수 있는 힘을 가질 만큼 강력한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사건은 "결정 불가능"하다는 성격을 가지므로, 그 자체로 상황 자체를 변화시키지는 못한다.[36] 상황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 거기에 관여하는 주체의 '개입',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개입이 이루어지는 '충실성'이 중요해지는 이유다. "우리는 충실성의 담지자, 즉 진리의 과정의 담지자를 '주체'라고 부른다. 따라서 주체는 결코 과정에 앞서 존재하지 않는다. 주체는 사건이 생기기 '이전의' 상황 속에서는 절대로 부재한다. 우리는 진리의 과정이 주체를 도출시킨다고 말할 수 있겠다"라는 바디우의 말을 참고할 때,[37] 사건은 주체의 기원으로 자리한다. 이북명의 소설에서 '통각하는 몸'은 노동자들의 상황에 사건을 일으키며, 이는 그들을 주체로 이끄는 기원이 된다.

「출근정지」는 이를 잘 드러내는 소설로, 질소비료공장의 변성탱크가 폭발하면서 노동자들이 죽고 이를 계기로 직공들이 저항을 시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공장은 "암모니아, 유산, 탄산이 몇 백 기압으로 화합하여 지독한 약품을" 만들고 "이 약품을 린광석(燐鑛石)과 화합시켜" "유인산비료(硫燐酸肥料)"를 생산하는 작업을 하는 곳으로서, "고된 노동과 숨이 막히는 악취"로 인해 창수는 폐결핵에 걸린다. 그는 변성탱크의 조절을 맡으며 모범 직공으로 삼 년간 일하면서 병을 얻게 되는데, 소설은 "얼굴이 양초빛 같이 희고, 광대뼈가 도드라지고, 뼈만 남게 여읜 창수의 모양"을 구체적으로 서술한다.[38]

---

36) 서용순, 「바디우 철학에서의 존재, 진리, 주체: 『존재와 사건』을 중심으로」, 『철학논집』 27,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2011, 98면.

37) 알랭 바디우, 『윤리학: 악에 대한 의식에 관한 에세이』, 이종영 옮김, 동문선, 2001, 56면.

38) 이북명, 「출근중지」, 『문학건설』 1, 1932.12, 9면. 이하 이 소설을 분석하는 부분에서 인용이

> 기계 문명의 위대한 행진곡을 울리는 H읍! 신흥도시 H읍, 읍에는 벌써 오백 명의 거리에 방황하는 까불린 직공들이 일자리를 구하며 헤매고 있지 않은가! (중략)
>
> 그들은 '우리에게 일자리와 빵을 ×오!' '우리들의 생명을 ×××하라!'하고 ×울 줄도 몰랐다. 까불리운 직공, 까불리려는 직공…… 모두가 공포 속에서 허덕이었다.
>
> "어떻게 할까?" 그들은 도무지 몰랐다. 이렇게 벌벌 떨고만 있는 직공들의 속통을 영리한 회사가 모를 리가 없다. 한 직공을 까부르고 그 자리를 다른 직공이 점하여 하게 될 때에 회사는 그만큼 이익이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다. 이 찬스를 회사는 제일 유리하게 이용하였다. 불경기라는 구실하에……
>
> 공포 속에 허덕이는 직공들이야 죽겠으면 죽고, 살겠으면 살고, 회사는 상관할 바가 아니다. 회사는 드디어 육백 명에게 대하여 출근정지를 선언하였다. 병 있는 직공, 말 마디나 하는 직공, 글자나 보는 직공…… 이런 직공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11)

공장은 "불경기라는 구실"로 몸이 병들거나 몸으로 통각되는 노동 환경에 강하게 저항하는 이들을 해고한다. 해고 통지 이후 노동자들은 감독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낙서를 하고 감독들이 들으란 듯 저들끼리 떠드는 등 이전과 다른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지내게 된다. 그러다 어느 날 변성탱크가 폭발하는 사건이 터진다. "스파나를 쥔 직공, 구루마를 밀고 가던 직공, 기계에 기름 주던 직공, 기계를 소제하던 직공, 목도하던 노동자…… H공장 산천 명 직공이 이런 소리를 지르면서 십 분도 못 되어 변성 기계로" 모이고, "독한 냄새가 전 공장에" 퍼져나간다. 더욱이 이미 해고 통지를 받은 이들이 그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소설은 그들의 몸이 사라진 모습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창수, 응호, 성삼…… 이들은

필요한 경우 괄호 안에 면수를 적어 본문에 표기한다.

하늘로 날아올라 갔는지 한 덩이의 살점, 한 개의 뼈도 보이지 않았다."(13)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그러다 병을 얻은 노동자의 몸은 끝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이들의 죽음은 다른 노동자들의 '결단'과 '개입'을 일으키게 된다. "운전 중의 기계를 내버려 두는 것은 보초(步硝)가 전지에서 졸고 있는 것 같이 위험한 일"이지만 노동자들은 하던 일을 일제히 멈춘다. 소설은 "육천 개의 눈살"이 공장장과 감독을 쏘고, 노동자들이 '출근 정지'를 외치면서 끝이 난다. 앞으로 있을 노동자들의 투쟁과 거대한 변화를 암시하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의미를 보여주는 소설이 바로 「초진(初陣)」이다. 이 소설은 1932년 5월 29일과 31일에 걸쳐 『조선일보』에서 두 차례의 게재로 연재 중단된 「질소비료공장」을 기반으로 창작된 것으로, 1935년 5월 일본어로 번역되어 『분가쿠효론(文學評論)』에 발표되었다. 검열의 흔적을 간직한데다가 계속 연재를 이어갈 수 없었던 「질소비료공장」은 식민지 조선에서 프롤레타리아 소설이 처한 조건을 뚜렷하게 드러내 보여준다. 조선에서 이 소설이 "찢어지고 조각나고 절단된 채로만 저 표상체제에 떠오를 수" 있었던 것과 다르게, 「초진」은 제국에서 "제국의 언어"로 번역됨으로써 "어떤 상처도 없이 말끔하게" 그 전모를 온전히 드러내 보여준다.[39] 그런 의미에서 이 소설은 이북명이 지닌 사유의 일면을 온전히 확인할 수 있게 해주기도 한다.

「초진」 역시 이 시기 이북명의 다른 소설들처럼 "숨 막힐 것 같은 소음과 악취 속"에 온몸을 맡기고 있는 노동자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소설의 초점화자인 문길은 「출근중지」의 창수처럼 폐결핵에 걸린 노동자이다. "공기 빠진 고무공 모양으로, 탄력을 잃어가는 자신의 몸 상태를 깨달은 후부터 그는 우울증에 걸렸다. 가슴이 괴롭고, 식욕이 쇠퇴하고, 기침이 나오고, 밤에는 식은 땀으로 내의가 흠뻑 젖는 때가 많았다."[40] 그럼

39) 차승기, 「공장=요새, 또는 생산과 죽음의 원천: 홍남과 이북명」, 앞의 책, 344면.
40) 이북명, 「질소비료공장(初陣)」, 이화경 옮김, 『한국 노동소설 전집3』, 보고사, 1995, 165면. 이

에도 창수는 공장에서 이제 막 조직되고 있는 노동자들의 친목회에 참여하는 것에 몸을 사린다. 자신에게는 건사해야 할 노모와 임신한 부인과 자식을 생각하면서, 회사에서 해고당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점을 염려한 것이다.

> 아직 아무런 회합도, 조직체도 가지고 있지 않은 미조직 노동자들 속에서, 가장 마음이 맞는 몇 명인가를 물색하여 이 유안친목회 창립위원회를 조직한 것이었다. 이것은 더구나 의지할 곳 없는 자기들이, 말할 수 없이 외로운 개개의 인간이었다고 하는 긴 기간의 경험으로부터 깨달은 최초의 정말 작은 단결의 맹아였다. 그들은 에고이스트였다. 그러나 그들은 이 에고이즘이 결국은 자기 자신들에게 불리한 조건과 불안한 생활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것을 많은 비참사와 희생을 치른 후, 육체적으로 통감했던 것이다.(170)

한 차례 실패로 돌아간 바 있지만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조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한다. "말할 수 없이 외로운 개개의 인간"으로 자신을 인식하는 "에고이스트"였던 노동자들은 공장에서 일을 하며 "자신들에게 불리한 조건과 불안한 생활"을 "육체적으로 통감했던 것이다." 이를 통해 이북명에게는 '몸' 자체를 통과하는 경험이 조직과 투쟁을 위한 중요한 걸음으로 여겨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공장의 감독뿐 아니라 사복입은 경찰들의 삼엄한 감시 속에서 친목회의 조직화는 좀처럼 힘을 얻지 못한다. 마침 공장은 생산력 증진을 위해 "춘기 직공 신체 검사"(177)를 통해 병든 노동자를 해고하려 하고, 폐결핵을 진단 받은 문길은 결국 해고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신체 검사'는 자본이 노동자의 몸을 활용하고 버리는 방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인 셈이다. 문길은 자신이 늘 마음

하 이 소설을 분석하는 부분에서 인용이 필요한 경우 괄호 안에 면수를 적어 본문에 표기한다.

에 새기던 “노동은 신성하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185)는 문구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깨닫고, 친목회 활동에 가담한다. 친목회에서는 “공장 특유의 악취는 소 같은 우리들의 신체를 다 먹어”(190)치운다면서 “일. 생산합리화에 대한 해고 절대 반대, 일. 희생자의 생활을 보호하라, 일. 징계 처벌 감축제도를 철폐하라”는 요구가 담긴 쪽지를 공장에 퍼뜨린다.

문길은 끝내 병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친목회장(親睦會葬)으로 장례가 치러진다. 문길의 ‘몸/시체’가 공장에 들어서자 노동자들이 점점 모여든다. 기마순사가 이들을 저지하려 하지만 노동자들의 울음과 휘파람 소리와 메이데이가는 멈추지 않고 오히려 한데 범벅이 되면서 문길의 영구(靈柩)를 맞이하고 보낸다. 소설은 공장의 소음과 대비되는 노동자들의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는 장면으로 끝나는 것이다. “들어라 망국의 노동자 / 울려퍼지는 메이데이”라는 노동자들의 노랫소리가 들리자 광장의 호상객들은 그에 응하며 “시위자에 일어나는 발걸음과/ 미래를 알리는 함성소리”라는 노랫말로 응한다. 이는 미조직 공장에서 일어날 변화와 노동자들의 강한 투쟁을 암시하는 결말이 아닐 수 없다. 노동자들의 통각하는 몸은 일종의 사건으로 작용하고 노동자들의 ‘개입’을 이끌어냄으로써 그들을 ‘주체’로 만드는 기원이 된다. 요컨대 이북명 소설에서 몸의 리얼리티란 감각적 묘사를 통한 핍진성으로부터 찾을 수도 있지만, 더 근원적으로는 주체화 과정의 개연성을 만들어냄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결론: ‘몸-리얼리티’와 주체의 형성

지금까지 살폈듯, 송영과 이북명 소설의 리얼리티는 실제 몸을 통과한 이념을 통해 주조된다. 그러한 리얼리티에는 핍진성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주체화의 가능성에 대한 작가적 인식까지가 모두 포함된다. 다시 말해, 작가가 육체 노동의 현장을 경험했기 때문에 현실적인 묘사를 만들어 낸다는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 실천적 주체로 나아가는 개연성이 몸으로부터 만들어진다는 차원으로까지 리얼리티가 확장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몸으로써 노동을 경험한 송영과 이북명이 창작한 소설에서 나타나는 특유의 리얼리티이다. 직공의 육체성으로부터 현실감과 핍진성, 나아가 서사적 개연성이 발생하는 것, 이것을 일종의 ‘몸-리얼리티’라고 칭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몸-리얼리티’가 발현되는 구체적인 양상은 다르다. 즉, 송영의 소설에서는 ‘본능에 반응하는 몸’이, 이북명의 소설에서는 ‘감각하고 통각하는 몸’이 노동자 주체-되기의 중요한 매개로 작동한다. 송영은 노동자의 몸에 각인된 식욕, 성욕, 수면욕 등의 본능에 주목하는가 하면, 이념적 사랑이 아닌 몸적 사랑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또한 이북명은 고통에 반응하는 몸의 감각들을 면밀하게 등장시키면서, 이것이 몸적 존재로서 노동자들의 연대 기반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들의 소설에서 형상화된 노동자의 몸, 특히 그 본능과 감각은 그것이 개별적이면서도 사회적이라는 점을 드러낸다. 이들은 몸을 사회화함으로써 몸이 개인을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저항과 연대의 물질적 토대일 수 있음을 전달한다. 실천으로 귀결되는 소설의 마무리가 이념성에 결박되지 않고 현실적 타당성을 가지게 되는 것은 이들 소설의 리얼리티와 관련된다. 이러한 발견은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리얼리티가 지니는 의미를 확장한다는 측면에서 연구사적 의미를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몸-리얼리티’를 개념화하고 그 구체적 사례를 한국문학사에서 찾는 것을 향후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개벽』, 『동광』, 『문예창조』, 『문학건설』, 『별건곤』, 『비판』, 『신계단』, 『작품』, 『조선문단』, 『조선일보』, 『조선지광』, 『중앙』

안승현 엮음, 『한국 노동소설 전집3』, 보고사, 1995.

『우리 시대의 작가 수업』, 역락, 2001.

2. 논문

강문희, 「송영 소설 연구: 식민지 시기 국제주의 연애와 가족 서사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고인환 · 장성규, 「식민지 시대 재만 조선인 디아스포라의 발화 전략」, 『한민족문화연구』 46, 한민족문화학회, 2014, 287-310면.

김정남, 「이북명 소설에 나타난 노동 현실 연구: 사회적 상황과 노동 현실의 변화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121, 한국언어문학회, 2022, 141-174면.

노지승, 「'붉은 사랑'이라는 성 각본(Sexual Script)과 여성의 정서적 주권: 여성 사회주의자 작가의 자기 서사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88, 한국현대소설학회, 2022, 149-181면.

배상미, 「억압의 소리와 희망의 소리 사이: 이북명 소설에 나타난 기계와 인간의 관계」, 『현대소설연구』 80, 한국현대소설학회, 2020, 235-270면.

서용순, 「바디우 철학에서의 존재, 진리, 주체: 『존재와 사건』을 중심으로」, 『철학논집』 27,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2011, 79-115면.

유승환, 「1923년의 최서해」, 『한국현대문학연구』 52, 한국현대문학회, 2017, 221-264면.

이경돈, 「최서해와 기록의 소설화」, 『반교어문연구』 15, 반교어문학회, 2003, 119-141면.

임 혁, 「송영 문학에 나타난 '체험'과 현실 인식의 관련 양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차승기, 「자본, 기술, 생명: 흥남-미나마타[水俣] 또는 기업도시의 해방 전후」, 『사이間SAI』 14,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13, 417-448면.

_____, 「공장=요새, 또는 생산과 죽음의 원천: 흥남과 이북명」, 『한국문학연구』 49,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5, 326-356면.

천정환, 「세기를 건넌 한국 노동소설: 주체와 노동과정에 대한 서사론」, 『반교어문연구』 46, 반교어문학회, 2017, 127-170면.
최병구, 「본성, 폭력, 사랑: 정념의 서사로서 프로문학의 조건(들)」, 『동악어문학』 61, 동악어문학회, 2013, 5-36면.

3. 단행본

알랭 바디우, 『윤리학: 악에 대한 의식에 관한 에세이』, 이종영 옮김, 동문선, 2001.
칼 마르크스, 『경제학-철학 수고』, 강유원 옮김, 이론과실천, 2006.

<Abstract>

Writing about ‘the labores of the Worker’
−Representation of the workers and physicality in the novels of Song Yeong and Lee Buk-myeong

Choi, Eunhye

This paper examines how the body of the labores is represented and signified, focusing on the novels of Song Yeong and Lee Buk-myeong, who used their experiences of working in factories as the basis for their novel writing. In Song Yeong's novel, the 'body that responds to instinct' and in Lee Buk-myeong's novel, the 'body that senses and apperceives' function as important mediators of labores subject-becoming. Song Yeong pays attention to the instincts of appetite, sexual desire, sleeping desire, etc. imprinted on the body of the worker, and explores the possibility of bodily love, including ideological love. In addition, Lee Buk-myeong's close characterization of the bodily sensations that respond to pain shows that this is the basis of the labores' solidarity as bodily beings. The body of the labores, especially its instincts and senses as embodied in their novels, reveals that it is both individual and social. By socializing the body, they convey that the body can be a material foundation for resistance and solidarity, rather than a prison that locks up individuals. In this way, the reality in the novels Song Yeong and Lee Buk-myeong is cast through the ideology that passes through the actual body, which can be called a kind of 'body-reality'. And that reality includes these authors' awareness of the possibility of subjectivization that goes beyond the overt display of verisimilitudity.

Key words: The body of the labor, instinct, sense, apperception, Lee Buk-myeong, Song Yeong, proletarian novel

투 고 일 : 2024년 12월 6일 심 사 일 : 2024년 12월 21일
게재확정일 : 2024년 12월 21일 수정마감일 : 2024년 12월 27일